

●일일스터디_표준안

서유진 / SBS / 2026.06.17

순번	기사 제목/뉴스 헤드라인	분야	비고
1	인천 훼손 시신, 성장판 닫혀 있었다..."키 161~165cm"	사회	주요뉴스
2	전쟁은 미국이 벌여놓고...동맹국에 떠넘긴 '453조'	세계	주요뉴스

(1)기사/뉴스요약

인천에서 시신 일부가 발견된 지 일주일의 지나도록 피해자 신원을 확인할 결정적 단서가 나오지 않자 경찰이 시신 유기 장소를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 등은 오늘(17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시신 감정 결과를 토대로 피해자 범주를 '키 161~165cm 성인'으로 좁힌 뒤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과수는 지난 10일 발견된 사람 왼쪽 다리의 성장판이 닫혀 있는 점을 토대로 성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성별이나 나이대와 관련한 소견은 아직 밝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다만 시신의 발 크기가 210mm라는 점을 토대로 여성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국과수 감정 결과에 따라 피해자 범주에서 어린 학생은 제외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시신의 유전자 정보, DNA와 일치하는 성인 실종자나 미귀가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시신 발견 장소인 인천 송도동 남부권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로 재활용품을 반입한 차량들의 동선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 수사본부에 인천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 40명을 증파해 수사 인력을 100여 명으로 보강했습니다.

경찰은 재활용품 운반차량 동선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시간이 지나면 CCTV 영상 자료가 삭제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관련 영상을 사전에 최대한 확보할 방침입니다.

시신 발견 당일 운반차량들이 센터로 재활용품을 반입한 횟수는 모두 34회입니다.

수거 지역별로는 연수구 20회, 중구(영종도 포함) 14회입니다.

국과수는 시신 정밀 감정과 유전자 분석 등을 계속 진행하면서 피해자의 인종적 특징과 성별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확보하기 위해 인력을 동원한 것"이라며 "구체적인 수사 진행 상황은 밝힐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핵심: 인천 연수경찰서 등은 오늘(17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시신 감정 결과를 토대로 피해자 범주를 '키 161~165cm 성인'으로 좁힌 뒤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2)기사/뉴스요약

<앵커>

양측의 종전 합의에는 최소 453조 원 규모의 이란 재건 기금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란은 이 기금을 전쟁 피해 배상금으로 여기고 있는데요. 미국은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벌인 전쟁의 뒷수습 비용을,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맹국들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박원경 기자입니다.

<기자>

블룸버그가 공개한 종전 양해각서 초안에는 미국은 역내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이란 재건과 경제 발전을 위해 최소 3천억 달러의 자금 조달을 보장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3천억 달러에 미국 정부 돈은 한 푼도 들어가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미국 대통령 : 이번 합의는 미국의 요구 조건을 아주 훌륭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합의를 위해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고, 아무것도 해야 할 것이 없습니다.]

미국 내에서 일고 있는 졸속 합의와 퍼주기 비판을 의식해 미국이 아닌 동맹국 돈으로 자금을 조달 하겠다는 겁니다.

[밴스/미국 부통령 : 우리는 미국이 아니라 다른 국가들이 이란에 투자하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이란 이 합의 조항을 철저히 준수할 때만 가능합니다.]

로이터 통신은 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미국과 아시아 지역 등의 기업들이 이미 1천500억 달러 이 상의 자금 조달에 동의했고, 한국 기업도 거론됐다고 전했습니다.

동맹국들과 사전 정보 공유 없이 일방적으로 전쟁을 시작해 국제 경제에 엄청난 부담을 준 미국이, 전쟁 복구 비용은 보복 공격 피해까지 입은 중동 지역과 동맹국 민간 기업들에 전가하겠다는 의도 입니다.

[조한범/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 투자했을 때 수익성이 낮은 사업에 투자를 강요당하거나 또 노 른자위를 미국이 모두 가져가거나 그런 상황과 그런 그림이 그려지는 건 우리한테는 아주 안 좋죠.]

기금의 조달과 운영 방식 등은 60일간의 향후 협상을 통해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 이란 재건 사업 진출과 호르무즈 해협 통항 안전을 고려하면 기금 참여를 마냥 외면하긴 어려워 우리 정부와 기업들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 블룸버그가 공개한 종전 양해각서 초안에는 미국은 역내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이란 재건과 경제 발전을 위해 최소 3천억 달러의 자금 조달을 보장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아닌 동맹국 돈으로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일일키워드

순번	키워드	설명	출처
1	RTX 스파크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2026년 6월 1일 처음 공개한 마이크로소프트(MS)와 공동 개발한 PC용 칩이다. 이는 엔비디아 블랙웰 GPU와 그 레이스 CPU, 최대 128GB 통합 메모리를 원칩(One-chip) 형태로 통합한 AI PC용 칩이다.	네이버 시사상식사전
2	장보고 N사업	국방부가 2026년 5월 26일 열린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 회의에서 발표한 핵추진잠수함(핵잠) 도입 사업의 명칭이다. 이에 따르면 1번 잠수함은 2030년대 중반에 진수하고, 2030년대 후반에는 해군에 인도해 실전 배치하는 전력화를 마치게 된다.	네이버 시사상식사전